

중국, 희토류 불법채취 집중단속

차이나데일리, 7월 말 단속에서 1000톤 적발 ... WTO 소송 대응

중국 당국이 최근 희토류 불법 채취와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가 8월2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7월 말 당국에 단속된 불법 희토류가 1000톤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억위안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광둥(廣東: Guangdong), 구이저우(貴州: Guizhou) 등이 집중단속 대상지역으로 지방정부와 현지 공안당국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희토류 생산 감축과 수출 제한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분쟁을 벌이면서 수출용은 물론 내수용 희토류 가격이 치솟자 불법 채취와 보유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일본·EU의 제소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심리패널까지 설치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불법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지만 중국은 기존의 희토류 보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희토류 부존량이 세계의 23%에 불과한데도 공급량은 90% 이상으로 중국의 환경과 자원 보호, 해당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희토류 가격 인상과 공급량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WTO의 희토류 소송과는 별도로 희토류 불법 생산과 보유에 대한 내부단속 역시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06>